

# 지재식위원장 전국현장순회

25일 전북지방을 시작으로 26일 전남 이어 나머지 지방 추후 일정확정



▲지재식위원장이 전남지역을 순회하면서 조합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03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현장조직강화의 일환으로 지재식위원장의 전국현장순회가 시작됐으며, 25일 전북지역의 현장순회가 있었다.

지재식위원장은 25일 전북본부를 시작으로 동전주, 김제, 정읍지점의 현장순회가 있었으며, 전북본부, 동전주, 정읍지점에서는 조합원, 조합간부들과의 2003년 단체교섭 결과, KT 및 노동계정세 등에 대하여 간담회도 있었다.

25일 전북지역순회 이어 26일 전남지역을 순회했다.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본부지부, 전남고객센터지부, 무안지부, 인자중계소 등을 순회하고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재식위원장은 2003년 단체교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ESOP청약에 꼭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쁜일정으로 인하여 많은 현장을 방문하지 못함에 대한 조합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상급단체 일정 등 여러가지 위원장 일정관계상 나머지 지방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주중에 나머지 지방본부의 일정도 결정하고 조합원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우리사주(ESOP) 유,무상 청약 마감

2003년 단체교섭 임금보전차원에서 노사합의한 우리사주(ESOP) 유,무상 청약이 26일로 마감됐다.

우리사주(ESOP) 유,무상 청약은 전체 직원 44,042명중 41,010명이 신청하여 93.1%의 청약율을 보였으며, 직급별로 분석했을 때 3급이상은 87.1%, 4급이하는 94.1%로 분석됐다.

또한 우리사주(ESOP) 청약 마감에 따라 배정주식수와 청약직원 출연금액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었다. 다음은 결정된 세부사항이다.

### 우리사주(ESOP) 세부사항

- 청약직원 : 41,010명(93.1%)
- 청약주식가격 : 43,600원(30일 증가 평균, 7월28일~8월27일)
- 직원1인당 유상배정주식수 : 22주(유,무상 총 44주)
- 직원1인당 출연금액 : 959,200원(9월급여일 공제)
- 청약직원 총주식수 : 901,648주(회사출연주식수 : 901,648주)
- 총주식수 : 1,803,296주(전체주식 점유비

0.62%)

## 우리사주(ESOP) 관련 소득공제와 의무보유기간

### ■ 소득공제(선택사항)

- 이번 ESOP으로 청약한 우리사주는 직원 유상 청약 금액에 대해서만(회사무상지원분 제외) 2003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의무보유기간

#### ○ 직원의 유상청약분

- 직원의 유상청약분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3년

- 직원의 유상청약분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년

#### ○ 회사의 무상지원분

- 의무보유기간 1년 + 가배정 3년 = 4년

(※ 직원 유상청약분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이나, 1년이후 3년 이내에 직원 유상청약분에 한하여 매도할수 있으며, 다만 매도시 2003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은 사측과 현장관리자들의 청약방해, 청약만류, 청약업무지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상집을 각 지방본부에 파견하고 부당행위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등 전체 직원의 자율적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다.

## ESOP 직원주식청약 부당행위관련 지침

■ 청약업무지연, 해태 및 청약만류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황실로 고발접수

(고발접수 상황실 전화번호 : 031-727-4821, FAX : 02-750-5404)

■ 청약업무지연, 해태의 경우 고발접수후 지부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청약접수 실시 및 접수

■ 기타 부당행위 발견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

우 중앙본부 고발센타와 지방본부에 지원요청 할것.

## 중앙본부, 2003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2003년 상반기 중앙본부 회계감사가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6일간) 실시된다.

수감기간은 8대집행부 출범이후인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로 건전한 노동조합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2003년 상반기 지출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 회감기간 : 2003년 9월 1일 ~ 9월 6일 (6일간)

■ 회감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 회감내역 : 2003년 상반기 지출내역

■ 지방본부 중앙지원비 수감 : 2003년 9월 4일 ~ 9월 5일(2일 중)



##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숙직하는 사람들의 장단점은?

출처 KTTU자유게시판 작성일 2003.08.30

KT는 주 5일제 근무시행을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숙직하는 각자의 수당관계(물론 무조건 대체휴일) 두번째는 휴가, 년가, 대체휴일로 인한 1인근무로 대형사고 발생우려 및 민원 발생 대체불가능 세번째는 근무환경 부적절함(1인근무에 따른 심적불안) 등등이 있다

추후 여러부서에서 논의 및 대책을 강구 하겠지만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요망합니다.

### "주5일 통과후

### 현대·기아車 재협상해야"

경총 "토요수당 150%만 지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현대·기아차나 금속노조 소속기업 등 이미 주5일제에 합의한 기업들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는 부칙이 정한대로 단축근로제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시기까지 못 박을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맞춰 모든 회원사에게 관련 단체협약 개정협상을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다음달 초까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10대 지침`을 확정해 일선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침 중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5일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일요일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갈등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일당 100%에 특근비 150%를 포함해 일당의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은 법정 유급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150%만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연장근무를 수당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나 상사가 연장 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명령하는 `휴가 사용촉진방안`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10% 제고`운동을 펼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은 가급적 신규인력으로 충원해 청년 실업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나이·근속기간순 명퇴유도는 부당" 법원, 전은행원 승소 판결

출처 KTTU자유게시판 작성일 2003.08.25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

는 김모(52)씨가 “근속기간 30년 이상 직원들이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회사가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직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연령자나 장기 근속자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명예퇴직자 선정시 근무성과 부양 여부, 재산, 건강, 재취업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와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측이 직급상 고위직인 김씨가 가입하지도 못한 노조와 명예퇴직제를 협의한 것은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원칙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4차례 전보로 인한 임금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0년 4월 ‘연공중심의 고비용·저효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김씨 등 3급 직원에 대해 장기근속자 위주로 명예퇴직을 권고했으나 김씨가 권고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자발적 퇴직 신청자로 명예퇴직 인원이 초과됐음에도 김씨를 한직으로 전보발령했다. (조선일보)

## 민주노총,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투쟁계획 및 내년 총선 등 안건 가결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송실대학교에서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및 2004년 총선 기획 등에 대한 안건을 가결했다.

단병호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하반기는 국민연금 관련 제도 개악과 사용자 대항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총공세가 예상”된다고 “대의원의 심도 깊은 토론과 책임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대의원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탄압에 총반경 투쟁을 전개하자”며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14:00시부터 시작된 대의원대회는 분반 토론 등을 거쳐 22:00시 본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추경예산, 2004년 총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안건토론이 이뤄졌다.

하반기투쟁을 ▲ 노동3권 강화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 ▲ 빈부격차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등 3대 요구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총파업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실시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및 일정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했다.

또한 2004년 총선에서 지역후보를 최소 50명 이상 배출하고 총선을 통해 ▲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확산 ▲ 의석확보를 통한 제도권내 정치기반을 확보 ▲ 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력 고양 ▲ 현장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7일 송실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공공연맹,  
3/4분기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8월23일 09:30분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국노동교육원에서 공공연맹 2003년도 3/4분기 정기중앙위원회가 개최됐다.

공공연맹 정기중앙위원회에서는 △규정개정 및 제정 △상급단체 파견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심의 △기타사항 등을 안건 심의의결했으며, 9월3일 개최될 임시대의원 안건으로는 ▲ 상반기 사업평가,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승인 건 ▲ 하반기 사업계획, 추경 예산(안) 승인 건 ▲ 산별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총선방침에 관한 건 ▲ 여성할당제 도입에 관한 건 ▲ 규약개정 및 규약제정에 관한 건 등이다.

한편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중앙위원회가 개최되기전 22일부터 공공연맹 가맹노조대표자 및 중앙위원 합동수련회를 개최했으며, KT노동조합에서는 지재식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이 참석했다.

## 2003년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소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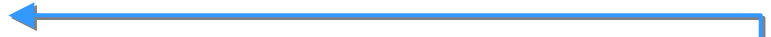
연맹규약 제20조(소집) 2에 의하여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0 제 목 : 2003년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0 일 시 : 2003년 9월 3일(수) 14:00
- 0 장 소 : 서울도시개발공사 대강당
- 0 참 석 : 연맹 대의원 전원
- 0 안 건
  - 1) 상반기 사업평가,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승인 건
  - 2) 하반기 사업계획, 추경 예산(안) 승인 건
  - 3) 산별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4) 총선방침에 관한 건
  - 5) 여성할당제 도입에 관한 건
  - 6) 규약개정 및 규약제정에 관한 건
  - 7) 기타

2003년 8월 2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승 원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